

문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답 33: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에베소서 1:7; 고린도후서 5:19-21; 로마서 4:5-8, 3:22, 24-25, 5:1, 17-19; 사도행전 10:43; 갈라디아서 2:16

질문 1: 의롭게 하심은 누가 하는 것인가?

질문 2: 의롭게 하심에 대한 값은 얼마나 되는가?

질문 3: 왜 의롭게 하심이 필요한가?

질문 4: 왜 의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가?

질문 5: 의롭게 하심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질문 6: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룬다는 것인가?

질문 7: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 8: 의롭게 하심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질문 9: 어떻게 죄인에게 의로움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설명: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법적행위이다. “의롭다하신 이는 하나님이지니” (롬 8:33)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가 미리 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시는 그의 일방적 사역이며 행위이다. 그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통해 그의 언약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살 수 없다.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가능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온 우주를 통털어 그리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의롭다 하심이란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유일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내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의롭다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나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은 죄인들에 지불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가 모든 값을 지불한 것이다. 의롭다 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아무도 요구되는 값을 치를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사람이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값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하심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다.

의롭다 하심은 마치 법정의 판사가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소”하며 판결을 선언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그가 보시기에 죄인이 의롭다라는 것이다. (롬 4:1-5:21; 8:1; 33-34) “의롭다”라는 말이 필요한 것은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로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3:23-24 의 말씀을 받아드려야 된다. 죄의 개념이 없이는 의로움을 이해 할 수 없다. 오직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죄의 댓가를 정당하게 받아드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이해될 것이다. 의롭다 하심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주시고 여기서는하나님의구속사역이다. 이미 스스로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속사역이 필요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런데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특별히 나쁜짓을 했거나, 남에게 해를 주었거나, 또 행동에 남을 거슬리는 짓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조금씩 실수하는 것을 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구차하게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 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은 마치 법전에서 죄가 있는자가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과 흡사하다. 이것을 좀더 설명하면 “죄가 없다”라는 판정보다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갑”이 “을”에게 일만불을 1 년안에 갚을 것을 전제로 빌려주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갚지 못할때에는 “을”은 “갑”의 노예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마감날짜가 왔지만 “을”은 “갑”에게 그 일만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제 “을”은 약속대로, 자신을” 갑”에게 노예로 내어주어야 하고 또 “갑”은 아주 정당하게 “을”이 그의 노예가 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을”이 그의 빚을 갚을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에 “예”가 나타난다. 그리고 “갑”을 설득하여 “을”의 빚을 갚아주되 아무런 조건없이 갚아주게 된다. 그리고 “을”은 “갑”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을”은 분명히 계약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되었다. 그리고 “예”가 나타나서 그의 빚을 갚기는 갚았지만 “을”이 “죄”를 지었던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을”의 “죄”로 인해 그가 “갑”으로 부터 자유 할 수 없었는데 “예”의 도움으로 “갑”으로 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는 일만불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왜 “예”는 “을”을 위해 자신의 값진 돈을 써서 그를 “죄”의 구속에서 자유케 했을까? 아마 “예”는 “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을”은 분명히 죄인이다. 그러나 “을”은 더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그저 용납하시거나 범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으로 부터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의 합당한 벌을 받아 왔고 지금도 그렇다. 이 세상에서의 병마, 범죄, 아픔, 신음,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치이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누리고, 육적으로는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에 우리의 부활된 육신이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된 영광의 연합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답 33 에서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 주심인데”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심의 핵심이다. (고전 1:30; 빌 3:9)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너무 신비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은 믿음으로 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 33 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롬 5:1)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요소들을 살펴보자

1.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요구하셨으며 대속죄물로 요구하신 것이다.

2.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리게 함으로 그 죄에 따른 모든 벌, 짐, 고통은 하나님의 어린양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심과 공의로움심의 표준이다. 의롭게 하심을 가능케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우리의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이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너무 중오한다. 마귀는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마귀는 죄인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그는 거짓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뿐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3-34)

우리는 또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믿음을 자신의 결정이나 다짐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에 해당되는 믿음은 사람의 어떤 결정, 다짐, 행동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관계를 말한다. 성경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 다시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쉽게 받아드리게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롭다 하심의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뺄수 없다. 붙잡아야 한다. 의롭다 하심을 더 잘 이해하려면 문 34, 35, 36 을 함께 이해 해야 한다. 의롭다 하심은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과 성화되는 과정을 시작할 뿐 아니라 완성함을 말해주고 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

제 11 장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11-1.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서는 효력 있게 부르시는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 속에 의(義)를 부으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받으심으로; 그들 속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轉嫁)시키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이 신앙으로--그 신앙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혹은 보상, satisfaction)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으로 그러하시다.

11-2.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신앙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의롭다 하심(칭의, 稱義)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동반하며,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役事)한다.

11-3. 전적인 은혜성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빛을 완전히 갹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졌고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 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11-4. 의롭다 하심의 때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11-5. 의롭다 하심 후의 죄 문제

하나님께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하신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의롭다 하심의 상태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며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까지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하심 아래 떨어지며 그의 얼굴 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11-6. 구약 아래서의 의롭다 하심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은 이 모든 점들에서 신약 아래서 신자들의 의롭다 하심과 동일하다.
